

갤러리 색즉시공



조고각하

조고각하(照顧脚下)입니다.
옆사람
뒷사람
앞사람
두루두루 살핍니다.

오늘은
나의 마음을
잘 살펴야겠습니다.

맑은 햇살은
살짝이
옆에 있어 줍니다.

맑은 햇살은
살짝이
사라집니다.

그런 걸림 없는 성품에
합장합니다.

글·작품=희상 스님

자신을 알아야 세상을 얻는다

Buddha in Comic & Ani

윤태호의 '미생'



윤태호의 '미생' 마지막권 표지.

누군가 그랬다. 바둑은 인생과 같다고. 가로 세로 19로의 바둑판에서 흑과 백은 서로 번갈아 착수하며...

한국 만화가 중 최근 가장 주목을 받고 있는 윤태호가 2012년 1월부터 2013년 7월까지 포털사이트...

의 첨병에 있는 치열한 영업 현장의 이야기이자 한 젊은이의 취업 일기이다.

'미생'은 11살에 한국기원 연구생으로 들어가 프로그래머로 목표로 살아가던 청년 장그레가 입단에 실패하고 '회사'라는 전혀 새로운 세계에 들어서면서 시작된다.

'미생'의 매력 중 하나는 바둑 대국의 기보를 제시하고 그에 맞춰 이야기를 구성하고 보여준다는 것이다.

작가가 굳이 조훈현의 세계 데뷔 대국의 기보를 매 회 머리에 올린 이유는 분명하다. 아무런 스펙을 가지지 못한 변방의 장그레가 대기업이라는 전성터에서 자기 자신을 찾아가고 스스로 발전시키는 이야기를 하고 싶었기 때문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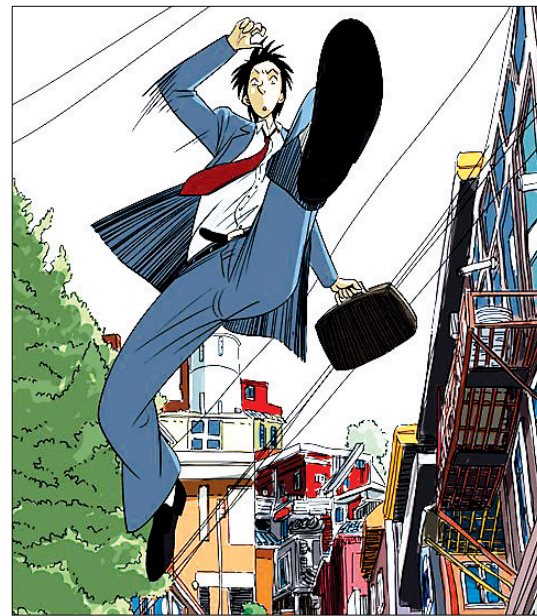
장생활에 문제의식을 느꼈고, 월급과 승진만이 아닌 직장생활 자체에서도 의미를 찾을 수 있다는 걸 보여주고자 이 만화를 시작했다.

실제 '미생'의 장그레는 매일 하루를 자신만의 기보를 정리하며 마무리한다. 수많은 사람을 만나고 그 안에 펼쳐졌던 이야기들을 '수담(手談, 바둑의 다른 말)'으로 정리하는 것이다.

바둑 대국·에피소드 조화 '눈길'
바둑 한수 한수가 화두며 공안
'眞我' 찾는 사람에게 기회 온다

장그레의 성장과 발전 과정은 이전 '시마 시리즈'와 같은 비즈니스 장르 계열의 만화와는 다른 매력을 보여준다.

그래서인지 모든 일에 매진하는 그의 모습은 화두에 몰두하고 있는 참선 수행자와 비슷하다.



'미생'의 한 장면들. 바둑 기사를 꿈꿨던 청년이 종합상사에 입단으로 취직하면서 겪는 이야기를 다루고 있다.

목(正眼)을 갖고 끊임없이 올바르게 노력해야(正勤) 깨달음을 얻을 수 있고, 자신의 일에 성공할 수 있음을 알기 때문이다.

그래서 바둑에는 '위기십결(圍棋十訣)'이라는 격언도 존재한다. '위기십결'을 정리하면, '욕탐불승(欲貪不勝 욕심을 내면 진다) △입계의완(入界宜緩 적의 세계에 들어갈 때에는 느그르려야 한다) △공피고아(攻彼顧我 적을 공격하기 전에 자기의 결함을 돌아보라) △기자쟁선(棄子爭先 패석을 버리고 선수를 장악하라) △사소취대(捨小就大 작은 이익을 버리고 큰 이익 취하라) △봉위수기(逢危須棄 달아나도 효과가 없으면 버려라) △신물경속(慎勿輕速 경솔하고 졸속하게 움직이지 말라) △동수상응(動須相應 적의 완급을 보아 응수하라) △피강자보(彼強自保 적이 강할 때는 오로지 자신의 보전에 힘쓰라) △세고취화(勢孤取和 고립된 형세에서는 화평책을 써라) 등이다.

선에 1700공안이 있듯이 바둑은 한수 한수가 모두 화두고 공안이다. 사실 바둑판이겠는가. 우리네 인생사 순간 순간이 모두 수행이고 화두이기 때문에 늘 바른 안목을 가지고 정진할 필요가 있는 것이다.

바둑에서는 두 집을 만들어야 '완생(完生)'이라 말한다. 두 집을 만들기 전은 모두 '미생(未生)' 즉, 아직 완전히 살지 못한 말, 상대로부터 공격받을 여지가 있는 말이다. 오늘도 우리는 자신만의 인생 바둑을 둔다. 수 많은 인연과 사건들이 세상과 나의 바둑판에 채워진다. 나의 바둑이 '완생'으로 끝이 날지 '미생'으로 마무리될지는 매일 매일 던지는 나의 돌이 결정한다.

신종일 기자 motp79@hyunbul.com

Advertisement for '새는 지붕' (The Bird on the Roof) by 현대칼라산업지붕공사. Includes text about traditional Korean architecture and contact information for various branches.

Advertisement for Yangji Guakusa (양지국악사). Features images of traditional Korean musical instruments like the Janggu and Goguma, and lists contact information for their Seoul and Incheon branches.

Advertisement for Gongmul (공물) by Yangji Guakusa. Promotes a new book '天易六氣經 공물' and includes details about its availability and contact information.